Special Issue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1, 제28권, 제1호 pp. 241-262 http://dx.doi.org/10.21812/kjsp.2021.1.28.1.241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021, Vol. 28, No. 1, pp. 241-262

코로나(COVID-19) 시대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천종문(산청초등학교)·홍덕기*(경상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겪은 체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G도에 위치한 푸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사면담,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의록, 연구자의 연구일지, 수업자료 및 관련문서를 수집했으며 귀납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냈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 간 검토와 다각도접근법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상황 속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은 '불확실한 학사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 '체육수업 전문성의 기준: 콘텐츠 제작능력 vs 수업전문성', '원격 체육수업의 책무성: 초등교사 vs 스포츠강사', '코로나 상황과 괴리된 행정지원', '언택트 상황 속 학교운동부 운영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원격 체육수업',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체육수업 전략', '정과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장려'로 나타났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초등체육의 과제는 '문서 수준 체육교육과정의 유연한 재구성', '원격 체육수업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행정지원', '학교운동부를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코로나 19, 초등체육, 체육수업 전문성, 체육행정지원, 사례연구

Ⅰ. 서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 선언 이후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는 전 세계를 그야말로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발병 이후 약 1년간 전 세계 170만 명을 죽게 만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과 높은 치사율은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뺏어갔다. 이는 학교 수업에도 영향을 주어 학생들은 전염의 우려로 인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 deockkihong@gnu.ac.kr

이르렀고, 결국 온라인 개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은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온라인 개학 후 학생들은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에 참여했다. 학습관리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이 있다. 현장 교사들은 학교, 학급, 학생 여건을 반영하여 원격수업 진행했다. 이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수단으로써 학습관리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코로나 19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원격/등교를 병행한 블렌디드(Blended) 수업과 전면 등교수업이 진행되었지만, 겨울로 넘어가면서 국내 코로나 상황의 재악화로 유발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및 2.5단계 실행에 따라 등교수업이 다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의 잦은 지침 변경에 따라 수업 방식이 원격수업, 블렌디드 수업, 전면 등교수업 등으로 변화할 때마다 현장 교사들은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도 나름의 방식대로 상황에 적응하며 교육에 헌신해왔다. 특히, 체육과에서는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전'에 소개된 다양한 수업 사례를 통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앱(application)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에서부터 가정에서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원격수업, 온라인 스포츠클럽 운영방안 등을 고민한 결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교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초등학교 원격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과 교육과정 편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김세기, 2020), 둘째, 원격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련된 연구(양동석, 조건상, 유은혜, 2020; 정현철, 윤현수, 2020; 조건상, 권용철, 양동석, 2020), 셋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적응에 관한 연구(백승수, 2020; 전세명, 2020)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체육수업의 고민을 선제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아쉬움도 발견된다. 첫째, 연구 기간이 1개월에서 5개월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현장 교사들의 대처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원격수업 운영에 주요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등교 시 체육수업의 구체적 운영사례를 심층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 셋째,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초등체육의 전반적인 상황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초등체육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년간 학사운영에 따른 사례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된 원격수업에서부터 블렌디드 수업, 전면등교에 이르기까지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은 현장의 어려움과 대처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초등 체육현장에서 겪은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초등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체육현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했던 교육현장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연구가 향후 지속될 비대면 교육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수업을 실행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 속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G도에 위치한 푸른 초등학교(가명)를 단일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연구는 현상과 맥락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조건이나 현상의 인과관계가 복잡한 관계의 과정을 탐색할 때 적합한 방법이자(Yin, 2009), 전체 맥락 안에서 사건의 흐름을 통합하고 독자들에게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incoln & Guba, 1985).

1. 연구현장의 이해

본 연구가 진행된 G도의 푸른 초등학교는 읍 소재지에 있으며, 규모는 18학급으로 한 학년에 3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교생은 380여 명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은 6학년 1개 학급(남: 14, 여: 9)과 5학년 1개 학급(남: 10, 여: 10)이다. 푸른 초등학교 5~6학년의 체육수업은 체육전담교사가 배정되어 주당 3시간의 체육수업 중 2시간을 담당하고 있고, 1시간의 체육수업은 5~6학년 담임교사와 스포츠강사의 팀티칭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푸른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원격수업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성격과 역할 및 주요 논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1. 푸른 초등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주요 운영내용

시기	참여인원	운영방법	운영 주제	중점 운영 내용
격주 1회	교원 21명	학년군별 수업협의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 교사수준 교육과정 설계 • 원격수업/블렌디드/전면등교 차시별 수업 설계 및 평가 문항 제작을 위한 공동 연구 • 원격학습/블렌디드/전면등교 수업 방향 및 수업 자료 제작 공동 연구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논의로 4월 셋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격주로 두 시간씩 총 15회 운영되었으며, 학년군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각자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5~6학년군 교사들과 체육전담교사가 참여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체육교육과정 재구성,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방향, 체육수업 평가를 위한 성취 기준 등 코로나 상황에서 체육수업과 관련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푸른 초등학교의 학사운영은 코로나 19 상황의 경중에 따라 등교유형별로 원격수업, 블렌디드수업, 전면등교, 단축된 전면등교로 표 2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2. 푸른 초등학교 등교유형별 학사운영

특성 \ 등교유형	원격수업	블렌디드수업	전면등교	단축된 전면등교
시기	2020.4.16.~6.14.	2020.6.15.~10.18.	2020.10.19.~11.29.	2020.11.30.~12.23
수업방식	과제제시형	과제제시형+ 거리두기 등교수업	완화된 거리두기 체육수업	축소된 체육수업(30분)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안전, 건강	도전, 표현	도전, 경쟁	경쟁, 표현
운영시수	23h	23h+20h	18h	8h
비고	1학기(46h)		2학기(50h)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표3과 같다. 연구자는 2020년 6학년 담임교사이자 3년째 푸른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는 체육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등교 병행기나 전면등교기에 체육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연구참여자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표 3. 연구참여자 특성

특성 \ 참여자	연구자(남)	L교사(남)	K교사(여)
직위	6학년 담임교사	체육전담교사	5학년 담임교사
년차	11년	8년	10년
경력	•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학위 • 초등체육수업연구회 연구위원 • 2020. 체육부장 • 학교체육업무 일반	• 초등체육수업연구회 연구위원 • 2018~2019. 체육부장 • 2018~2020. 중점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씨름부) •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 석사학위 • 초등체육수업연구회 회원 • 2020. 생활부장

연구참여자인 L 교사는 연구자와 더불어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L 교사는 2019년에 정구를 주제로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수상할 만큼, 체육에 대한 이해와 동영상 편집 및 제작 능력이 뛰어나다. 한편, K 교사는 초등체육수업연구회 회원으로 연구자와 같이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9년 G교육청에서 공모한 학년형 e학습터를 운영한 경험에서 출발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육, 영어, sw교육을 주제로 5학년 3개 학급의 학생을 동아리 형태로 조직하여 블렌디드 수업을 20시간(1학기 10시간, 2학기 10시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2020년에는 연구참여자들이 학년별 담임과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육수업개선을 주제로 5학년(1개 학급)과 6학년(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년군형 e학습터를 운영하였다. 원래 학년군 e학습터 운영의 목적은 비대면 체육수업의 개선에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등교유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등교유형별 체육수업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집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문서자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의록과 연구자의 연구일지 등 크게 2가지였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의록은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참여자들 간의 대화를 정리하고 기록하여 수집되었다. 연구자의 연구일지는 등교 유형에 따른 체육수업의 계획-실행-반성 과정, 스포츠클럽 운영방안 등 초등체육 현장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의 중 결론이 안 나거나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할 주제들도 연구일지에 기록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참여자별로 3회씩 40~50분간 실시되었고, 반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원격수업/블렌디드 수업/전면 등교/단축된 전면등교 등 등교유형에 따라 체육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 등교유형별 체육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코로나 상황 속 체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행정지원은 어땠나요?”를 기본 질문으로 각 2~3가지의 하위 질문을 하였으며,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여 확장된 면담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김영천(2013)의 질적 자료 분석 과정에 따라 귀납적 분석을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자료의 요약하기와 묶기 작업으로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로 만들고 다양한 해석 틀로 연결하기 위해 분석적으로 자료를 읽고 1차 코딩을 시행하기 전에 생성된 의미를 간단한 문장이나 메모 수준으로 작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료를 다시 묶고 합치는 작업으로 전반적인 자료에서 주제나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자료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분석적으로 작성된 메모에서 자료 간의 관련성을 위해 코드를 찾았다. 3단계에서는 자료에서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추측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분류된 코드를 통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주제를 생성하였다. 각 단계별 코딩과정 및 코드의 예시는 표 4와 같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 차원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스포츠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초등교사 1인이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시각, 선행연구의 결과와 각종 참고문헌, 면담의 일치성 확보를 위한 구성원 간 검토(members checking) 등 다각적인 접근(triangulation)을 꾀하여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연구윤리 측면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체육수업에서 수집한 수업장면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학생에게 설명하고 당사자와 학부모의 동의를 구했다.

표 4. 코딩 예시

주제	초점 코드	초기 코드
코로나 상황 속 초등체육의 어려움	불확실한 학사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	등교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학사일정 변동
		원격수업에 적합한 교육과정 재구성
		원격수업 시 평가방법의 어려움
		성취기준의 재구성 및 평가 기준 축소

	체육수업 전문성의 기준	원격수업 제작 방향에 대한 고민
		SNS 상 다른 교사와의 전문성에 대한 비교
		영상 제작 및 편집 기술로 돋보이는 원격수업
	원격 체육수업의 책무성	원격수업 제작 상황에서 스포츠강사의 역할
		많은 교과 영상을 제작하는 초등교사의 업무과중
		복무지침과는 다른 스포츠강사의 현실
	코로나 상황과 괴리된 행정지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모사업 진행의 어려움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기관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의 적절한 사용
	언택트 상황 속 학교운동부 운영의 제한	대회 개최 시기 미정에 따른 막연한 훈련
		현실과는 다른 언택트 방식의 운동부 운영 지침
		늦은 대회 미개최 통보에 따른 학생들의 허탈감
		비인기종목 학교운동부 운영의 어려움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원격 체육수업	과제제시형 수업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가정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육수업 모색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교구의 대체 물품 고안
		학생 스스로 학습목표 달성여부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체육수업 전략	등교 상황에서 안전한 체육수업 방안 모색
		등교개학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과 실제 현장 적용의 괴리
		앱을 활용한 거리두기 체육수업 방안 모색
	정과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장려	PAPS 측정 결과 체력저하 및 비만도 증가 확인
		내실있는 7560+ 운동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방안 모색
		온라인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를 통한 신체활동 장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은 연구결과 및 논의로 코로나 상황 속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1절),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2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초등체육의 과제(3절)로 나누어 제시한다.

1. 코로나 상황 속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초등체육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은 '불확실한 학사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 '체육수업 전문성의 기준: 콘텐츠 제작능력 vs 수업전문성', '원격 체육수업의 책무성: 초등교사 vs 스포츠강사', '코로나 상황과 괴리된 행정지원', '언택트 상황 속 학교운동부 운영의 제한'로 나타났다.

1) 불확실한 학사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학사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먼저, 원격수업기에는 과제제시형 LMS인 e학습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격수업기에 연구참여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것은 체육과 교육과정을 원격수업 맞게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고민이었다. 고민은 크게 2가지로 첫

째, 교육과정을 현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와 둘째,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원격수업 초반기에는 전세명(2020)과 조건상, 권용철, 양동석(2020)의 연구에서처럼 이론적인 부분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다. 이론화된 체육수업의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 영역의 순서는 안전, 건강, 도전 영역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위생과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 연구자: 현 상황에서 예전처럼 5가지 영역 수업 시수를 균등하게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이론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걸 우선 배치하고 다음은 생각해보자.
> L교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안전 영역, 건강 영역으로 이론 수업을 구성해서 시간을 벌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 (4월 셋째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학기 초 발생한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학습내용을 온라인에 맞는 신체활동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서적 교육과정을 실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 L교사: 이제 민첩성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할건데, 집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
> K교사: 교육과정이랑 교과서에는 어떻게 제시되어있는데? 그거 참고하면 되는 거 아냐?
> L교사: 콘 사이를 이동하며 콩 주머니 주어오기나 친구들에게 공 배달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집에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구성해야 할지 고민되네.
> (5월 셋째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연구참여자들의 수업 내용에 대한 고민은 계속 깊어진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빈약했다. 원격수업기에 연구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고민으로 수업 영상이 탑재되기 하루 전까지 수업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한 적도 있었다. 특히, 가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습내용을 실천하게 만드는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고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육수업을 구성했다. 가령 건강 단원에서 두루마리 휴지, 종이컵을 이용한 스택 릴레이를 진행하면서 순발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관련된 또 다른 고민은 학습내용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였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코로나 상황에서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민 끝에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전차 시 수업에서 1인 1미션 과제를 제시하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했다. 평가 자료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원격수업에서 1인 1미션 해결을 통한 과제수행 평가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은 다음 수업 초기에 과제 수행만 따로 3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동기유발에 활용하였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 원격수업기 중 e학습터에 수업 영상을 탑재하기까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노력만큼 학생들의 성취도가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2) 체육수업 전문성의 기준: 콘텐츠 제작능력 vs 수업전문성

원격 수업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체육수업의 전문성 기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의 주요 쟁점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대로 정확한 시범을 보여주는 등 수업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가정에서는 여건상 적용하기 힘든 수업의 경우와 반대로 수업전문성의 질을 높이는 측면보다 콘텐츠 제작능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수업에 대한 비교였다.

> 연구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 교수자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과제에 대해 정확한 시범을 보여주는 유형의 영상이 있고, 반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집에서 신체활동을 하기 좋도록 과제를 제시한 유형이 있더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
> L교사: 평소와 같은 체육수업이라면 본 차시 학습에 필요한 용·기구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는 수행에 대한 정확한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이 집에서 뜀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뛰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그리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수업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
> (5월 셋째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원격수업 초기에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 파워포인트 제작, 영상에 자막 제작하기, 랜더링한 영상 추출 등 영상제작 자체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지만,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제작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요령이 생기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자세로 수행을 요구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하여 체육수업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 가졌던 영상제작에 대한 부담과 교사들 간의 암묵적 비교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연구자: 원격수업에 탑재될 체육수업 영상을 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지?
K교사: L교사는 체육 실기 능력도 좋지만, 베가스를 잘 만져서 촬영한 영상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자막의 위치에 따라 심폐지구력의 개념,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장면이 화려하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은 체육수업의 전문성이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능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L교사: 저도 수업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범과 학습 내용을 안내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공통적인 툴이 있었으면 교사들 간의 비교나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영상 잘 만드는 것이 체육수업의 전문성과 관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월 첫째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연구참여자들은 원격수업에 탑재될 영상을 편집 및 제작하며 체육수업 전문성을 고민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효과적 영상 제작 능력 등의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체육교과 본연의 교수능력이 저평가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3) 원격 체육수업의 책무성: 초등교사 vs 스포츠강사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유형이 변하면서 스포츠 강사의 업무 및 역할에도 고민의 지점이 생겨났다.

K교사: 스포츠 강사에게 5학년 체육수업 영상을 제작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겠다고 하네요. 평소에 저희들은 체육이외에도 10과목과 관련된 수업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스포츠강사가 주도적으로 체육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5월 K교사 면담)

K교사의 경우 여러 과목의 영상제작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체육수업 영상제작만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주당 3시간의 체육수업 중 담임교사와 스포츠강사가 팀티칭을 하는 1시간 분량의 수업은 원격 체육수업 영상 제작의 역할을 누가 주도해야하는 지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남겼으며, 체육수업의 주체에 대한 갈등은 수업운영 방식이 대면수업으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연구자: 지난 운동장 체육수업에서 스포츠강사만 보이던데, 그 날 바빴나 보네.
K교사: 네, 생활업무를 처리하느라 운동장에 나가지 못했어요. 수업 잘해주시니까 믿는 거죠.
연구자: 원격수업할 때랑 이야기가 좀 다르네.
K교사: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7월 K교사 면담)

K 교사가 말하는 '원래의 위치'는 체육수업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남긴다. 사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업무 및 역할과 관련한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논의되어 왔던 민감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김승우, 조한무, 임승엽(2018)과 김현자, 손천택(2010)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강사가 수업의 주도권 없이 담임교사가 배정한 시수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육수업에 임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반대로 전세명, 정현우(2015)는 스포츠강사 제도의 장, 단점을 논의하며 장

기적으로 체육전담교사 제도의 정착을 통한 초등체육의 발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스포츠 강사제도는 체육과의 실기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시범에 대한 전문성과 수업 준비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스포츠강사 복무규정에는 스포츠강사가 단독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제시되어있으므로 원격수업의 주체도 스포츠강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편의 때문에 스포츠강사 주도로 체육수업이 진행되어 오는 경우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김승우, 조한무, 임승엽, 2018; 김현자, 손천택, 2010; 전세명, 정현우, 2015).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초등교사의 원격수업 업무 가중과 원격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부족을 이유로 체육수업의 책무성을 스포츠강사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자칫 체육수업의 주도권에 대한 스포츠강사와 초등교사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4) 코로나 상황과 괴리된 행정지원

연구자가 근무하는 G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청단위 사업으로 학교체육 사업을 공모한다. 이러한 교육청 단위의 행정지원은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기존 행정지원 사업은 현장과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푸른 초등학교는 '7560+운동 선도학교'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체육 공모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연구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7560+운동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주일에 5번씩 60분 이상 운동을 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으로 지원받은 5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 장학사: 현재 많은 학교에서 공모사업 예산의 반납에 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올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운영에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반납은 어려우니 상황에 맞게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4월 연구자 연구일지)

푸른 초등학교의 학교체육 공모사업 담당자였던 연구자는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진행된 상황으로 인해 전면등교기가 되어서야 사업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학년군별 아침걷기, 건강 체력 향상, 미래 스포츠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로 운영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청 주관 공모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할 때 실행책임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사고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민은 코로나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거리두기 지침 등을 준수한다고 해도 체육수업의 특성상 한 명의 학생이라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 학교 운영이 중단되고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업운영을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 연구자: 10월 26일부터 아침 8시 10분부터 50까지 화, 목요일에는 학년군 별 아침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월, 수, 금요일에는 저체력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오후에는 스마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드론축구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L교사: 다 좋은데 현재 밀폐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기, 개인위생 유지 등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다보면, 유사시 책임은 교사가 짊어지고 가야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참가 희망학생은 학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월 셋째 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사업 진행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는 교구구입, 실내 공간에서 신체활동 장소 확보 등 다른 학교의 공모사업 운영 사례와 함께 장학사와의 대화를 통해 차기 년도 사업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임기응변식이었으므로 기존의 행정지원은 코로나 상황과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기존 공모사업에 변화를 주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공모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5) 언택트 상황 속 학교운동부 운영의 제한

초등체육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혼란을 겪은 분야 중 하나는 학교운동부이다. 푸른 초등학교의 경우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다. 예년과 같았더라면 씨름부 학생들이 겨우내 흘린 노력의 결실을 소년체전 2차 선발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합이 무기한 연기되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L교사: 혹시, 도교육청에서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공문 온 것 있나요?
연구자: 어, 공문이 나에게 접수되었는데, 온라인 개학 종료 시까지 교내외 단체 훈련은 금지되고 원격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더라.
L교사: 원격훈련 프로그램이요? 참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연구자: 그래, 소년체전 2차 선발전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훈련을 계획하기 참 애매하겠다.
L교사: 네. 1차 선발전에서 가능성이 보여 겨울 내내 열심히 훈련해서 6학년들 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선발전도 선발전이지만, 지금 2월 달까지 씨름 훈련했던 4~5학년 아이들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4월 셋째 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온라인 개학이 발표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이 공문으로 단위학교에 전달됐다. 등교개학 전까지 운동부 학생들의 교·내외 훈련을 금지함에 따라 L 교사와 운동부 지도자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훈련량과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점검하는 형태로 훈련방법을 변경했다. L 교사는 비인기종목인 씨름부를 운영하면서 학생선수의 모집을 위해 2019학년도에 교내스포츠클럽리그전을 통한 물질적 보상,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 제공, 고가의 피복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언택트 상황 속 학교운동부 운영의 아이디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6학년들과 5학년 2명을 제외하고, 어렵게 모집한 4~5학년 학생들은 원격수업 및 학원수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하나둘씩 이탈해나갔다.

연구자: 올해 소년체전이 2021년도로 순연되었다는 공문이 왔네.
L교사: 진짜요? 아...지금까지 감독님하고 아이들이 몇 달 동안 체중 유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6학년들이 엄청 허탈해 할 텐데 걱정이네요. 하아... 내년을 준비해야겠네요, 5학년 2명, 4학년 1명 남았는데, 뭔가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 선수 모집하기도 좋을 건데 진짜 힘드네요.

(7월 L 교사면담)

신입부원들의 이탈은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의 존폐위기에 대해 걱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방식의 훈련이나 시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다. 결국, 소년체전이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는 결정은 운동부 담당교사, 지도자, 학생, 학부모 등 대회 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6학년들은 대회 출전이 무산되면서 자신이 연습한 기술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상황에 많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앞 절에서 다룬 코로나 상황에서 겪은 초등 체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원격 체육수업',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체육수업 전략', '정과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장려'로 나타났다.

1)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원격 체육수업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원격 체육수업 콘텐츠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첫째, 가정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육수업 가능 여부, 둘째,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교구의 대체 물품 고안, 셋째, 교사의 직접적 도움 없이 수업 영상만으로도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에 두고 원격수업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에 탑재된 수업 영상으로도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체육과 성취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가정이나 주변에서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휴지, 수건 등을 주요 수업 도구로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원격수업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3가지(과제 점검 및 학습 안내, 학습활동 제시, 과제제시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했다.

첫째, 원격수업에서 동기유발에 해당하는 순서는 과제 점검 및 학습 안내 시간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원격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이 가정에서 수업에 실제로 참여하는지를 알기 어려웠고, 신체활동 수준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수업의 끝부분에는 가정에서 참여하기 쉬운 신체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을 편집하여 다음 수업의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학습활동 제시 단계는 본 차시 학습 목표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학습활동 영상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 내외로 제작되었다. 원격수업 상황에서 수업 목표는 첫째,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달, 둘째, 신체활동의 빈도를 높이는 콘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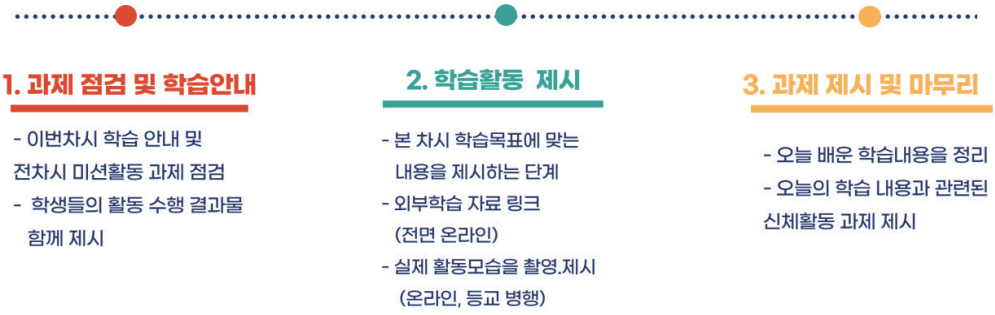

그림 2. 원격수업 상황에서 체육수업의 흐름

츠 제공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단순한 과제제시학습을 지양하고, 학년에 알맞은 체육과 교육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내에서도 다양한 신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힘썼다. 셋째, 과제제시 및 마무리 단계는 본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의 학습 내용과 함께 학생들에게 1인 1미션 과제를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원격 체육수업 영상 제작에 있어서 기존 교사중심의 수업진행방식을 탈피하여 학생의 눈높이와 적극적 참여를 고려한 과제제시에 초점을 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자 노력했다.

2)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체육수업 전략

원격수업기에서 원격/등교 병행수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 간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교육부(2020)의 '등교개학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는데 막상 체육수업을 실시해 보니 학생들 간 충분한 공간을 유지한 상황에서 개인 용·기구를 사용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번호가 마킹된 라인테이프를 체육관 바닥에 2m 간격으로 부착하여 학생들 간의 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 L교사: 선생님, 5학년 표현활동 수업에서 점프밴드를 했는데, 2~3차시까지는 기본 스텝 8가지를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아이들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명이 함께하는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연구자: 체육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 기능 위주의 수업은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팀 활동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 (6월 셋째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은 학생들 간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데 있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이나 손 씻기, 발열체크 등 개인의 위생 및 건강을 확인하는 형태만으로는 다양한 체육수업의 진행에 제한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딜레이드 카메라(delayed camera)앱인 비디오 코치(video

coach)를 활용한 수업을 실행하였다(그림 3참고). 딜레이드 카메라앱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신체활동 과제 수행 시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설정된 시간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김신회 외, 2017; 김의진, 2015; 천종문, 2018). 이를 위해 체육관에 화면 공유 기능이 있는 TV 2대, 스마트폰, 테블릿 PC를 설치하고 수행 장면을 촬영한 화면을 미러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동작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딜레이드 카메라앱을 활용한 체육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자신의 수행 동작을 점검 및 수정하면서 게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약적인 기능 향상을 보였다.

그림 3. 딜레이드 카메라앱을 활용한 체육수업 사례

딜레이드 카메라앱을 활용한 체육수업은 5학년 민속표현 중 티니클링 수업, 6학년 표적도전 중 컬링, 플라잉디스크 골프, 한궁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의에서 5~6학년군 체육수업 영상을 지켜본 4학년 교사들도 수업 후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무엇보다 안전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관찰하고, 4학년 동작도전 중 뜀틀수업에서 활용하기도 하였다.

> 연구자: 올해 5월에 완공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VR 체육실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VR 체육실에 구비된 스마트TV 2대와 딜레이 카메라앱을 활용하여 안전한 체육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 4학년 교사: 딜레이드 카메라는 스마트폰이 수행 장면을 촬영하고, 설정된 시간에 따라 10초나 20초 뒤에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학생들의 동작 수행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각자의 위치가 원마커로 구분되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체육수업을 진행해서 좋은 것 같아요.
>
> (6월 셋째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3) 정과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장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었다. 이는 전면등교기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표 5).

학생들의 비만도(BMI)는 2019학년도의 남학생 평균(76명, 20.5)과 여학생 평균(60명, 20.6)에 비

표 5. 푸른 초등학교 2019~2020학년도 PAPS 결과

학년도	학년	성별	심폐지구력(왕복오래달리기, 회)	키(cm)	몸무게(kg)	비만(BMI)
2019 (136명)	5	남(44명)	70.2	145.5	43.6	20.5
		여(26명)	43.2	143.2	42	20.3
	6	남(32명)	80.9	150.2	46.6	20.5
		여(34명)	56.2	152	48.4	20.8
2020 (131명)	5	남(31명)	42.8	145.9	45.7	21.3
		여(30명)	30.7	146.4	47	23.2
	6	남(44명)	71.6	156.7	52.3	21.3
		여(26명)	51.9	152.1	50.3	21.7

해 증가세가 관찰되었으며 심폐지구력에서도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과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그림 4 참고).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매주 화, 목요일은 아침걷기프로그램으로 3~4학년군은 운동장 걷기, 5~6학년군은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하며 학교 근처 왕복 3㎞의 산책로를 걷기에 참여했다. 매주 월, 수, 금요일은 PAPS 결과 저체력 학생들을 포함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L 교사와 스포츠강사가 코로나 상황 맞춤형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운영하며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향상 및 비만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연구자와 L 교사는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 온라인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여를 독려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온라인 학교스포츠클럽 전국 대회는 티볼(포구), 버피텐, 농구(자유투) 등 총 15개 종목으로, G도 대회는 탁구, 드론축구, 한궁 등 3가지 자체 운영 종목을 추가한 18개 종목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처음 열리고 홍보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아쉬웠다.

푸른 초등학교에서는 L교사의 대회 참여 독려 덕분에 6학년 8명(남: 6, 여: 2)이 육상(왕복달리기), 체력(버피텐, 턱걸이), 축구(리프팅), 티볼(포구), 한궁(개인전) 등 6개 종목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학교스포츠클럽은 참가자 소개, 활동 장면 촬영, 학교스포츠클럽 앱에 접속하여 영상 탑재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L 교사는 참여 학생들의 영상 촬영을 통해 종목이해를 높여갔으며, 3명의 학생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자 다른 학년 학생들과 동료교사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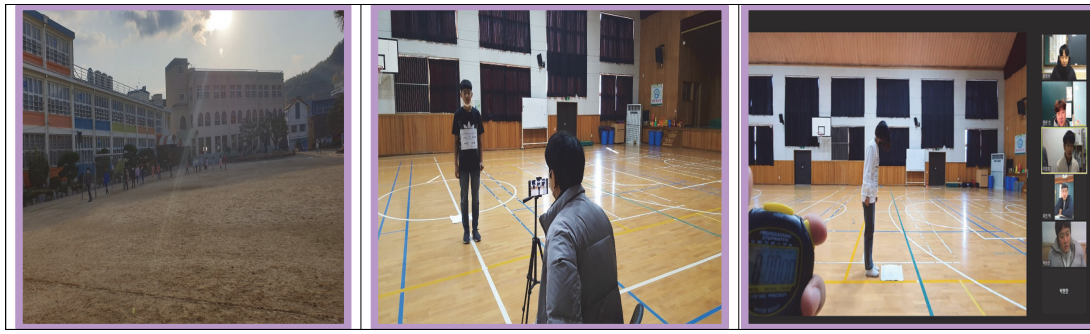

그림 4. 정과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사례

K교사: 이번에 6학년 3명이 전국대회에 진출했던데 축하드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5학년도 참여할 걸 그랬어요.
L교사: 지난 직원회의 시간에 종목 설명이랑 참여방법을 안내했었는데 설명이 어려웠나보네.
K교사: 아. 그게 아니라 듣는 거랑 실제로 하는 것이랑 다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런데 버피텐은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힘들긴 하던데. 내년에는 내가 지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애들이랑 한번 참여해봐야겠다.
연구자: 내년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온라인 스포츠클럽을 반영해서 리그전도 운영하고,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아이들 지도한 영상이랑 학생들 참여한 영상 공유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안해보자.

(11월 셋째주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의록)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스포츠클럽대회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학생들의 종목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영상 촬영의 번거로움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밴드 및 유튜브에 공유된 참가 영상을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종목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학기 말 실시되는 푸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반성회에 온라인 스포츠클럽을 차기 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위축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3.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초등체육의 과제

본 절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과제를 '문서 수준 체육교육과정의 유연한 재구성', '원격 체육수업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행정지원', '학교운동부를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문서 수준 체육교육과정의 유연한 재구성

코로나 상황은 문서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현장에 운영하는데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문서 수준 체육교육과정의 유연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내용 제시는 그 자체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성의 여지를 어느 정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건강과 안전 영역의 이론부분은 학년군을 넘나들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실기적인 면에서도 가정에서 가능한 신체활동 제공을 토대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유연성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 신체활동 공간 및 용기구 활용의 제한은 문서 수준 체육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온전히 적용 및 실행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년군별 교육과정 운영에 더해 교사들이 학습내용 선정의 융통성 등 교육과정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현장의 교사들이 매뉴얼없이 원격 체육수업 콘텐츠를 구성하기에는 전문성의 부족과 업무과중에 따른 부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매뉴얼 개발을 통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

2) 원격 체육수업의 질 향상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 처음 학교현장에 도입된 시기로 준비과정이 길지 않아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원격수업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김경오, 2020; 백승수, 2020).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쌍방향 플랫폼으로 수업을 진행해달라는 구체적 요구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온라인 콘텐츠 구성 및 제작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체육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의 체육수업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어야 한다(김승환, 천성민, 2020).

현재까지 교사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체육수업 콘텐츠는 주로 운동 기능에 대한 정확한 시범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교사가 운동기능을 뽐내는 형식에 그치기보다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론, 현장 교사들의 체육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노력과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한 우수 수업 영상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카메라 앞에서 녹화하는 기능 시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교사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전문성이 부족한 현장 교사들도 기존의 공유된 콘텐츠를 적절히 편집하거나 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도 콘텐츠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3)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행정지원

코로나 시대는 미래사회의 교육에 대한 모습을 한층 앞당겨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체육활성화 문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표 6처럼 2020년 G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체육 공모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여되며 이는 행정지원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한 학교에서도 무의미한 예산의 집행보다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원래 계획된 각종 체육대회나 스포츠클럽대회의 미개최로 인해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절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교구의 구입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선심성 사업을 통한 낭비식 예산 집행보다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에 시급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행정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온라인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는 사업을 통해 종목의 특성에 맞는 교구의 구입과 프로그램의 개발

표 6. G교육청 학교체육 공모사업 목록

영역	중점 내용	지원금(단위: 천원)	선정 현황
7560+ 운동 선도학교	• 상시적인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 매일 운동(Daily P·E)하는 학교만들기 내용	5,070	초·중·고 24개교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 중점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프로그램 • 스포츠 활동의 직·간접 체험과 교육 병행 • 인근학교 연계, 교사, 학생, 학부모 함께 참여	4,950	초·중·고 10개교
뇌를 깨우는 아침스포츠 활동	• 정적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정규 수업 전 아침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 학교 교육환경 특성에 맞는 아침스포츠 프로그램	4,000	중·고 50개교
드론축구 시범학교	• 스마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 드론축구를 활용한 체육과 미래역량 함양 방안	2,000	초·중 16개교
학교체육활성화 선도학교	• 학생건강체력 중진 프로그램 •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의 다양성 •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육수업 컨텐츠	6,000	초·중 20개교

및 보급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현재의 행정지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4) 학교운동부를 위한 장기적 방안마련

코로나 상황에 교육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았지만,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은 학교운동부일 것이다. 현재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모토로 다양한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들에게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경기실적이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는 각종 대회의 연기 및 취소를 불러왔다. 또한, 전지훈련 등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간에 불평등이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영선, 2020). 코로나 시대에 적어도 학생선수들이 흘렸던 땀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땀 흘리며 노력한 과정을 확인할 기회는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 거리두기가 안전히 지켜지는 가운데 대회 개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및 지역소멸에 따른 학생선수 자원의 급감과 학교운동부의 사회적 문제 등은 단기적 방안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운동부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 방안과 더불어 경기실적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방식의 개선을 비롯해 학교운동부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Ⅳ. 요약 및 제언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급격하게 퍼져나간 코로나(COVID-19)의 역습은 단기간에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초등체육 현장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겪은 체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G도에 위치한 푸른 초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사면담,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의록, 연구자의 연구일지, 수업자료 및 관련문서를 수집했으며 귀납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냈다.

연구결과 및 논의는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1절),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2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초등체육의 과제(3절)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속 초등체육 현장의 어려움(1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불확실한 학사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이다. 둘째, '체육수업 전문성의 기준: 콘텐츠 제작능력 vs 수업전문성'이다. 셋째, '원격 체육수업의 책무성: 초등교사 vs 스포츠강사'이다. 넷째, '코로나 상황과 괴리된 행정지원'이다. 다섯째, '언택트 상황 속 학교운동부 운영의 제한'이다.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2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원격 체육수업'이다. 둘째,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체육수업 전략'이다. 셋째, '정과 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장려'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초등체육의 과제(3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 수준 체육교육과정의 유연한 재구성'이다. 둘째, '원격 체육수업의 질 향상'이다. 셋째,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행정지원'이다. 넷째, '학교운동부를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이다.

본 연구는 푸른 초등학교라는 특정 공간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교사들이 겪은 현장체육의 어려움과 대처방안의 사례를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지기를 기약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초등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초등체육과 관련하여 일관된 지침마련 및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초등체육 현장에서 겪은 시행착오 사례를 유형별로 수집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착오의 원인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체육수업 전문성의 기준, 원격 체육수업 책무성의 문제, 행정지원상의 문제, 학교운동부 운영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체육 현장의 문제점은 경우에 따라 교사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격 체육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의 공유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별, 학교급별로 코로나 상황 속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유형별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학습 공동체를 넘어서 체육관련 학회나 정부에서도 세미나, 토론회,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 감염의 우려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체육수업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나 제한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원격 및 쌍방향 체육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녹조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운동장 위의 흉측한 잡초들이 없어지고, 원래 모

습을 되찾기에는 이미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변화 속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운동장에 생기를 불어넣은 학생들의 힘찬 움직임과 웃음소리일 것이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관리자, 행정가들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참고문헌

교육부(2020). **등교개학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

김경오(2020). 코로나19 시국 이후 체육교육의 행태와 의미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함의.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401-412.

김민정, 장덕선(2020). 학생선수의 코로나19 경험 인식에 대한 은유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1(3), 81-102.

김세기(2020). 코로나 19로 인한 초등학교 체육교과 원격수업 실태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45-158.

김승우, 조한무, 임승엽(2018).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안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4(2), 83-94.

김승환, 천성민(2020).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강사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9-26.

김신회, 김의진, 전흥수, 정철환, 천종문, 이병준(2017). **쉽게 배우고 함께 나누는 SMART 체육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의진(2015). **스마트폰 기반 자기모니터링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운동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현자, 손천택(201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학교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6(2), 151-164.

백승수(2020). 코로나-19와 학교체육수업. **스포츠과학**, 152, 94-101.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2020).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31-144.

이영선(2020).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새로운 지표는.... **스포츠과학**, 151, 10-17.

정현철, 윤현수(2020).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중등학교 온라인 체육수업 사례 및 과제 연구.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ESS), 8*(3), 159-175.

전세명(2020). 초등체육전담교사의 온라인과 등교수업 적응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31-144.

전세명, 정현우(2015). 스포츠강사 제도 분석을 통한 초등체육 정책 발전 방향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

지, 21(1), 197-209.
조건상, 권용철, 양동석(2020). 온라인 개학에 대처하는 체육교사들의 노력 과정. **教員教育**, 36(4), 239-260.
천종문(2018). 앱과 웹을 활용한 스마트체육수업.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19-36.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4th ed). Thousand Oaks, CA: SAGE. 신경식, 서아영 역(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논문접수: 2020년 12월 26일 / 수정본 접수: 2021년 1월 27일 / 게재승인: 2021년 1월 29일.
❑ 천종문: 산청초등학교 교사. 관심분야는 체육과 교육과정, 게임수업 등. jm1000@nate.com
❑ 홍덕기: 경상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는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 스포츠 인권 등. deockkihong@gnu.ac.kr

Abstract

A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ping Strategy regarding Physical Education in COVID-19 Pandemic

Jongmun Cheon (Sancheong Elementary School)
Deockki H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ping strategy for concerns regarding school physical education environment in COVID-19 era. The Pureun elementary school was selected as a case to answer for the research question. The teachers' interview, researcher's note, teachers' subject meeting note, and related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open and axial coding procedures and constant comparison method. Triangulation and members checking were used for the trustworthiness. The results and discussion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icult part regarding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in COVID-19 was categorized as 'an uncertainty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mplementation', 'physical education expert's criteria: online contents creation skill vs knowledge for physical education',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 execution subject; elementary school teacher vs sports instructor', 'difficulty of administration's support', and 'abnormal operation of school sports team.' Second, the teachers' efforts to overcome difficulty caused by COVID-19 was categorized as 'student-centered online physical education class', 'physical education class strategy based on social distancing', and 'school-wide physical activity program promotion.' Third, futur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ask to deal with post-COVID 19 era was categorized as 'flexible reconstruction of the document-based curriculum', 'improving quality of distant physical education class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administrational support for future society', and 'long term plan for school sports team.'

Key words : covid-19,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expertise, administrational support for physical education, case study